

전주시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주차 공간

‘부설주차장 개방·조성 지원사업’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민 참여 이어지며 도심 주차난 해소 기여

전주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주차 공간이 전주시 주차난 해소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민간 참여로 추진 중인 ‘2025년 부설주차장 개방·조성 지원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총사업비 4억1000만 원이 투입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신청 접수자 조기 완료됐으며, 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23개소 1048면 주차장 개방 지원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시는 올해 7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지난 상반기 중 단독주택 8개소

의 17면 주차장 조성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신청 접수를 통해 주차장 조성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34만2248대로,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주시역 전체 주차면수는 등록 차량대수의 138%에 해당하는 47만3148면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중 대다수(약 98%)가 종교시설과 학교, 공동주택, 민간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이어서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차장 확보율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유휴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을 건물 이용자뿐

만 아니라 일반에 개방할 경우에는 주차면수와 연장 횡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개방주차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시설개선비와 함께 유·무료 개방 방식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도심 적재적소에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리주체는 2년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한 노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해마다 추진하고 있

다. 답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거나 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면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는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를 줄여 안전한 골목길 보행 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과 자원 투입이 필요한 공영주차장 조성 외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유주차 문화 확산과 주차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사랑콜’ 여름맞이 이벤트

친구 추천·다이얼자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 등 추진

새단장을 마친 전주형 택시호출 앱 ‘전주사랑콜’이 여름맞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연다.

전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시원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형 택시 호출앱인 ‘전주사랑콜’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사랑콜은 리뉴얼을 기념해 여름 한시 이벤트로 오는 21일부터 8월까지 친구 추천 이벤트와 함께 같은 기간 전주사랑콜 자동결제 이용자 중 상위 300명의 다이얼자에게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사랑콜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4000원의 택시요금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자동결제로 택시



이용시 최대 50만 원까지 택시요금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택시요금 결제 시 쿠폰(1000원~4000원)으로 교환 사용할 수 있는 상시 이벤트도 추진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현대모터스FC 무패가도 속 1994 특별노선 ‘만차 행진’

상반기 총 8809명 이용
노선 필요성·효용성 입증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FC가 무패가도를 달리며 K리그 선두를 질주 중인 가운데, 전주시가 홈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운영한 1994 특별노선도 만차 행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전북현대모터스FC 홈경기 관람객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한 1994 특별노선의 상반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주말 홈경기 일정에 맞춰 총 10회 운행된 특별노선에는 총 8809명의 시민이 탑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누계 홈경기 관람객인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FC가 무패가도를 달리며 K리그 선두를 질주 중인 가운데, 전주시가 홈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운영한 1994 특별노선도 만차 행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8만 3000명의 약 5% 수준이다. 특히 정규시즌 역대 최다 관중(3만 1830명)을 기록한 지난 5월 31일 경기에서는 특별노선을 이용한 시민이 1682명에 달해 노선의 필요성과 효용

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다. 1994 특별노선은 평화동 종점을 출발해 전주한옥마을과 시의·고속버스터미널, 종합경기장, 전북대학교를 거쳐 월드컵경기장까지 경기 2시간 전부터

10분 간격으로 집중 운행된다. 또 경기 종료 후에는 만차 기준 순차적으로 출발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행 시스템을 갖췄다.

시는 경기 입장권 예매 실적과 경기 당일 기상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차량을 유동적으로 배치하고, 질서유지 인력과 교통 정리 지원도 함께 운영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시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된 대중교통 서비스가 경기관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공동체의 응원 열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면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응원 문화’로서의 전환 가능성도 확인했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15일 전주시 34개 동 주민센터 동장들과 시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각 동별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동장 회의를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 34명 동장들과 소통 나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행정의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들과 시청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동별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에 나섰다.

우범기 시장은 1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34개 동 주민센터 동장들과 시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각 동별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동장 회의를 가졌다.

앞서 우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행보인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해 왔으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과의 소통 행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시민 최전방에 있는 동장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선8기 4년차 전주시의 주요 현안인 △원주·

전주 통합 추진 △2036 전주올림픽 유치 △MICE복합단지 사업 등에 대해 공유했다.

또 오는 21일부터 34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장들은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들의 요청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함께 각 동별 건의사항을 보고하는 건담의 시간도 마련됐다.

우범기 시장은 “동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만큼, 전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길 바란다”면서 “여름철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동장들께서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허투루 듣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송천2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에 생수·아이스크림 제공

지난 14일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동장 최용신)에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과 민원인들에게 아이스크림과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더위 썩~ 힐링냉장고’를 운영하여 연일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운 폭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더위를 잠시나마이라도 식히고 송천2동 동네복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위해 주민센터 내에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설치했다.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아이스



크림과 얼음물이 주민센터에 상시 준비되어 있어 방문하는 주민들과 민원인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여의동 새마을부녀회·협의회, 어르신 위한 삼계탕 나눔

여의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경순)와 협의회(회장 박태하)는 15일 무더운 여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이날 관내 식당을 이용하여 여의동 새마을부녀회·협의회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계탕을 손수 만들어 지역 어르신 120여 명에게 대접했다.

박경순 회장은 “병사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하 회장은 “정성껏 삼계탕을 준비해 주신 새마을회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해인 여의동장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여의동 새마을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의 침하를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